

조선대 정시모집 학생부 폐지 수능 100%

■ '2016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계획' 발표

광주과기원 수시모집 175명 중 학교장 추천 50명

2016학년도부터 조선대학교는 다문화 자녀 전형을 실시하고, 정시모집은 수능으로만 평가한다.

또 광주과학기술원은 학교장추천 전형을 실시하고, 기초생활수급자·농어촌학생 등을 대상으로 한 '고른기회'전형으로 학생을 선발한다.

조선대(총장 서재홍)와 광주과기원(GIST·총장 문승현)은 최근 '2016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계획'을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조선대는 2016학년도에 총 4633명을 선발하며, 만학도전형을 폐지하는 대신 다문화가정 자녀들을 대상으로 하는 다문화 자녀전형을 새롭게 시행한다.

수시모집에서는 2015학년도에는 학생부교과전형으로 시행한 국가보훈대상자전형, 다문화전형, 취업경력자전형, 농어촌학생전형(정원 외), 특성화고교전형(정원 외), 저소득층전형(정원 외), 특수교육대상자전형(정원 외)을 2016학년도에는 학생부종합전형으로 선발해 비중을 확대했다. 또 학생부교과 일반학생전형의 수능최저학력기준을 2015학년도에 비해 완화했다.

수시모집은 총 3142명을 학생부교과전형, 실기위주전형, 학생부종합전형으로 선발한다. 학생부교과전형은 수시모집에서 가장 많은 인원을 선발하는 일반학생전형에서 2100명을 선발하고, 선발방식은 면

접이 있는 사범대학을 제외하고는 학생부교과성과 출석성적을 중심으로 전형이 진행되지만 수능최저학력기준을 반영한다는 차이가 있다. 수능최저학력기준은 모집단위별로 기준을 다르게 적용한다.

실기위주전형은 실기전형과 특기자 전형으로 249명을 선발한다. 140명을 선발하는 실기전형은 학생부도 반영한다. 문예창작학과와 경우는 수능최저학력기준을 반영하므로 지원 전에 미리 살펴봐야 한다. 723명을 선발하는 학생부종합전형은 2016학년도에 자기소개서를 폐지하였다.

정시모집의 경우 2015학년도에는 수능 70%·학생부 30%로 평가한 것을 2016학년도에는 학생부는 반영하지 않고 수능으로만 평가한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실기고사 실질반영 비율을 축소했다.

광주과학기술원 학사과정인 지스트대학은 올해 신입생을 200명 선발한다. 지난해와 동일하게 수시모집에서 175명, 정시

모집에서 25명을 선발하게 된다. 또 올해는 처음으로 수시모집에서 '학교장추천전형'으로 50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소속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국내 일반고, 특성화고, 자율고 졸업예정자가 지원할 수 있으며 고교별 추천 인원은 2명 이내이다.

수시모집에서 '고른기회전형'의 경우 올해 8명을 증원해 총 20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가구 학생, 농어촌 학생 및 국가보훈대상자를 대상으로 한다.

학생들의 지원 기회 확대를 위해 수시 및 정시모집에서 수능최저학력기준은 적용하지 않는다. 지스트대학 정시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수능에서 국어 A형·수학 B형, 영어 그리고 과학 분야 8과목(물리 I·II, 화학 I·II, 생명과학 I·II, 지구과학 I·II) 중 서로 다른 분야 2과목에 응시하면 된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광주여대-중국 허베이사범대 상호발전 우호교류 협정 체결

광주여자대학교 이선재 총장을 비롯한 국제교육부장, 미용학과와 항공서비스학과 등 광주여대 국제교류 방문단을 위한 Co creative Vision-UP Education사업단을 운영하고 있다.

출발 전 통 있는 학교이다. 허베이사범대는 21개 단과대와 100개 전공에 3만8520여명의 학생이 재학중이며 교수, 도서, 인터넷, 생활환경 모두가 사범대학을 방문해 양기관의 상호 발전을 위한 우호교류 협정을 체결했다.

중국 허베이사범대는 중국 제 1호 여성 교육기관이며, 초대 총리 주은래의 부인 등영초가 1기 졸업생으로 배

출발문을 통해 다음 학기부터 10여명의 학생을 상호 교환하기로 하고 향후 점차적으로 교류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전남대-부산대 교직원·학생

광주 '화합·감동 한마당' 성료

부산대학교(총장 김기섭)와 전남대학교(총장 지병문)가 광주에서 화합과 감동의 한마당을 연설했다.

영남과 호남을 대표하는 거점 국립대학인 부산대와 전남대는 지난 4월30일~5월1일 이틀 동안 전남대에서 두 대학 교직원·학생 5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제29회 친선교원경기 및 문화예술 교류행사 '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행사 첫날 예술대학 예향홀에서 열린 '전·부사랑 콘서트'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두 대학 구성원들의 뜨거운 박수갈채를 받았다.

관악합주 '수제천'(부산대학교)과 25현 가야금 4중주 '아리랑놀이'(전남대), 태평소와 사물놀이(부산대), 민요 '새타령'(전남대) 등 흥겨운 국악무대가 펼쳐지는 동안 객석통로까지 메운 두 대학 구성원들의 아기가 저절로 들쭉였다. 이어 공연된 세계적 피아니스트 전남대 박은식, 부산대 김정권 교수의 피아노 듀오와 두 대학 연합 합창단의 코러스는 부산대와 전남대의 마음을 하나로 연결시켜주기에 충분한 멋진 하모니였다.

이날 공연 역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두 대학 모든 참가자들이 '사랑으로'를 함께 부르는 것으로 막을 내렸다.

둘째날에는 전남대 대운동장과 스포츠센터(체육관), 테니스코트 등에서 두 대학의 학생과 교직원들이 축구와 농구, 테니스, 풋살 경기를 펼치며 화합과 우의를 다졌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호남대 장기기증 캠페인

호남대학교 사회봉사센터(센터장 조규정)는 최근 이틀 동안 대학교 일원에서 '생명나눔운동'을 주제로 조혈모세포 및 장기기증 캠페인을 실시했다. <호남대 제공>

초당대, 이민자 위한 조기적응지원센터 현판식

초당대학교(총장 박종구)는 최근 대학 국제교류교육원에서 이민자를 위한 조기적응지원센터 현판식을 가졌다.

초당대는 지난달 법무부로부터 결혼이민자와 외국 국적 동포의 한국 사회정착을 지원하는 조기적응 지원센터 위탁운영 기관으로 지정됐다.

조기적응지원센터에서는 결혼이민자, 외국국적 동포, 유학생 외국인을 대상으로 입학 초기 정착 과정에서 법, 제도, 문화의 차이로 인해 겪는 부적응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기적응 교육을 실시한다.

지난 2014년 9월부터 이민자의 조기적

응프로그램 이수 의무화가 확대됨에 따라 방면취업 자격으로 입국한 외국국적 동포는 외국인 등록전에 의료·주거·교통·통신 등 초기 정착에 필요한 기초 생활정보 및 기초법·제도를 내용으로 하는 교육(3~4시간)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초당대는 작년에 이어 2번째로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조기적응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남부대, 특성화사업단 2차년도 계획 설명회

남부대학교(총장 조성수)는 최근 교내 협동관과 대운동장에서 특성화사업단 관련학과 재학생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특성화사업단 2차년도 계획과 프로그램을 알리는 설명회를 열었다.

남부대는 지난해 6월 교육부의 지방대학특성화사업에 선정되어 장애아동을 위한 Co creative Vision-UP Education사업단을 운영하고 있다.

유아교육과·유아특수교육과·초등특수교육과·사회복지학과·언어치료정각학과 등 5개학과가 장애아동과 장애아동의 통합교육과 관련 서비스를 전문

적·포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차별화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지난해 해외봉사단 파견, 비전-업 캠프, 다양한 학생지원 프로그램과 전공·교양특강 등을 실시했다.

남부대 Co-v Edu사업단 단장인 유아교육과 김현정 교수는 "학생들의 관심을 유도하고 2차년도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기 위해 힘쓰겠다.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과 지원으로 교수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학생들의 현장 적응능력을 키워 통합교육전문가를 양성하겠다"고 말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동강대, 글로벌 인재 양성 해외 현장학습

동강대학교(총장 김동욱)가 국제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핵심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해외 현장학습을 실시한다.

동강대는 지난 2일 '2015년 전문대학 글로벌현장학습사업'에 참여하는 간호학과 장정희(2년), 이한솔·이효정·전아리(이상 3년)양 등 4명을 캐나다 토론토로 파견했다.

'전문대학 글로벌현장학습사업'은 교육부 주최,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주관으로 대학생들의 국제화 감각 및 여학능력을 향상시켜 글로벌 인재로 키우기 위해 매년 진행하고 있다.

캐나다, 미국, 독일, 말레이시아, 일본 등 세계 각국에서 4개월간 여학연수

(8주)와 현장실습(8주)의 기회가 주어지고 전액을 지원받기 때문에 경쟁이 치열하다.

지원 자격은 토익 550점 이상, 학과성적이 우수해야 가능하며 각 학교에서 서류 시험과 면접을 거쳐 전문대학협의회 의 현장학습계획서 및 면접 평가 등을 통과하면 최종 선발된다. 해외 파견 전에는 40시간 이상의 사전 교육과 멘토링 교육을 받는다.

동강대 간호학과 4명은 8월23일까지 캐나다 대표 칼리지인 '센테니얼 칼리지(Centennial College)'에서 현장학습에 참여한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부동산 경매! 특수 물건만이 정답이다!

특수비법 배우실 분!

- ✓ NPL과 특수물건만 전문취급
- ✓ 1대1 실전 개인 전수
- ✓ 주 1회 3개월 교육
- ✓ 교육 / 임장활동비 사무실 사용료(1년) 등등 2200만원
- ✓ 단, 상담 후 분사 결정

공동투자 하실 분!

- ✓ 자금 - 1억원 이상
- ✓ 기간 - 1년 정도
- ✓ 수익 - 연 20% 정도
- ✓ 방식 - 3대1 방식
- ✓ 보장 - 소유권 이전

낙찰물건에 투자 하실 분!

- ✓ 1억원 이상
- ✓ 제1순위 근저당 설정
- ✓ 낙찰물건에 80~90% 정도
- ✓ 기간 - 상담 후 결정
- ✓ 이자 - 연 10~12% 확정

특수비법 전수하고 활동하고 계신분들!

- 건설회사 사장
- 제조업 사장
- 가정주부
- 전, 경찰서 서장
- 공인중개사
- 광주대학교 학생
- 전, 소방서 서장
- 경매학원 원장
- 채권회사 부장
- 명품회사 사장 등 다수 상담시 오릅니다!
- 석재공장 사장
- 전, 은행 지점장
- 장례식장 사장
- 전, 도청 직원
- 기사자동차 직원
- 오회화장품 이사
- 아주커 치킨 사장
- 입시학원 원장
- 주유소 직원

부동산 경매 투자 전문회사 (주)오천경매 H. 010-3605-5000 (상담예약 요망)